예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십니까?(롬10:11-12, 고후8:9)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부자 되는 것을 말할까? 성경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 없고, 많이 소유한 것을 부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부요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결과로 영육이 잘 되는 것을 말한다. (요삼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부요했지만, 영적으로는 파산선고를 받았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는 자신이 모은 재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 \tau12:21) "자 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진정한 부요를 경험하려면?

1.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한 삶을 기대하십시오.

(롬10:11-12)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하지 않으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하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신다. 세상의 부요함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부요를 기대하라.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크신 풍성한 축복을 사모하라.

2. 부요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접촉하십시오.

(고후8:9上)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예수님의 별명은 "부요하신 분 '이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부요하신지 그 분량을 우리는 헤아려 알 수가 없다. 그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부요하심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온 천하에 충만하다. 육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가? 건강하기를 원하는가? 범사에 풍성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부요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접촉하라!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야 그분의 부요하심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신앙생활은 부요해지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다. 먼저 믿고 부요해지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라!

3. 자신을 비움으로 부요함을 경험하십시오.

(고후8:9下)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세상에 사람의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유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부요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신다. 목마름을아신다. 삶의 고단함을 아신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병을 앓았던 여인이 손을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흘러들어가 건강하게 된 것처럼,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부요하심의 축복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십니까?(롬10:11-12, 고후8:9)

- 1. 마음 열기 내 마음을 감동시켰던 선물은?
- 2. 경배와 찬양 찬송가 151장(만왕의 왕 내 주께서)



- 3. 말씀 나누기 먼저 성경본문과 말씀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본문과 설교요약을 읽고, 특별하게 다가온 구절이나 은혜 받은 교훈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 (2) 현재 나의 삶이 영육 간에 부요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부요한 삶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 (3)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다가 건강을 회복한 여인처럼(막5장), 간절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은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4. 사역나누기

- (1) 오늘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 (2) '교회설립 60주년 행사'를 위해 기도합시다.9월 9일(권성수 목사), 9월 16일(홈커밍데이), 10월 28일 (선교사파송)